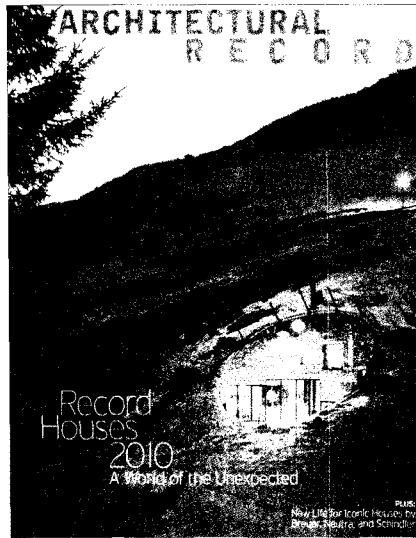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의 건축유형별 연구 섹션에서는 2010년 Record지가 선정한 주택들, SeARCH and Christian Müller Architects(CMA)의 Villa Vals, MADA s.p.a.m.의 Well Hall, René Van Zuuk Architekten의 Project X, Michael Maltzan Architecture의 Pittman Dowell Residence, Rick Joy Architects의 Woodstock Farm, Masahiro Harada+MAO/Mount Fuji Architects Studio의 Tree House, 그리고 Atelier Bow-Wow의 Mountain House가 중점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Books 섹션에서는 'Looking Homeward'라는 주제로 the iconic house, Five Houses, Ten Details, 그리고 The Nature of House: Building a World that Works의 세 권의 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 Books

●The Iconic House: Architectural Masterworks Since 1900 : Dominic Bradbury and Richard Powers. Thames&Hudson, 2009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상징'이 되는 책을 엮어놓은 두터운 책이다. 1900년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의 MacKay Hugh Baillie Scott가 디자인한 Blackwell 하우스

로부터 트릭의 집칸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다시 지어질 수 있는 Holden, Haak&Höpfner의 Micro Compact House에 이르기 까지 방대한 양의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자료를 실고 있다. 100가지가 넘는 사진자료들이 각 페이지마다 빼곡이 들어 있으나 그 내용은 저자의 주관 하에서 잘 장리가 되어 있다.

Gwathmey House가 표지 디자인에 사용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건물들은 저자가 상당히 좋아하는 건물들이지만 각 시대별 건물과의 관련성은 매우 밀접한 건물들이다.

●Five House, Ten Details: by Edward R. Ford.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9

분명히 하자면 이 책, Five House, Ten Details는 제목과 달리 주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저자가 설계한 5개의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디테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간과 프로그램의 개념이 부재하고 형식적으로 유사한 계획만이 zoning이라는 껍데기 위에 다양하게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점이 저자가 선택한 주제를 통해 방법론적이고 개인적인 연구를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저자의 다섯가지 계획은 질서, 재료의 표현, 구조를 드러내는 방법, 연결을 만들어 내는 방법, 그리고 비례의 불일치로 각각 그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놀랍지 않은 것은 그의 디자인은 나무를 보다가 미처 숲을 보지 못한다는 흠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건축적 디테일에 대한 학자이며 그의 자기성찰적인 글은 항상 유창하고 자기 비판적이다. 그의 글은 모더니즘의 디테일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져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여러 질문에 명료하게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는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 책의 각 장은 흥미롭고 정당한 해결안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The Nature of a House: Building a World That Works: by George M. Woodwell. Island Press, 2009

10여년 전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완벽한 기회를 노력의 결과로 얻어 Massachusetts의 Cod만으로 Woods Hole Research

Center를 이전을 하게 되었다.

이 연구소를 설립한 과학자인 Woodwell은 이 건물을 지은 건축사 William McDonough과 함께 한 작업에 대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쓰고 있다. 디자인으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해 Woodwell이 이야기하는 여행과 같은 이야기이다.

Woodwell과 건축사 William McDonough는 1877년대의 낡은 집을 지속가능한 건축이라는 아젠다를 바탕으로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개장을 하도록 결정을 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Woods Hole Research Center는 건물이 사용하는 전력의 30%의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고 지속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건물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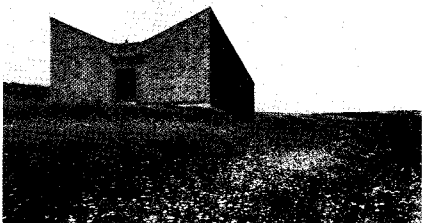
■ Project

Well Hall, China / MADA s.p.a.m.

Qingyun Ma는 그 가족의 고향에 집을 짓는데 있어 이질적인 요소와 지역적인 요소를 결합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초고층 빌딩이 초스피드로 지어지고 있는데 반해 건축사 Qingyun Ma는 그 반대의 접근법을 선택했다.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슬로우 빌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슬로우푸드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고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또한, 기후 및 계절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였으며 이 지역사회에 잘 어울리는 지속가능한 건물을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건축사 Ma와 그의 상하이에 있는 그의 회사 MADA s.p.a.m.은 지난 10년 동안 Jade Valley Wine&Resort를 개발해 왔다. 디자



Well Hall



Well Hall

인과 건설이 시작된 지 8년 후에 이 대지 위에 주거의 프로토타입으로서 Well Hall이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새로이 지어지게 되었다.

Well Hall의 레이아웃은 중국의 전통적인 중정형식을 취하고 한 가족 안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전통을 고려하여 디자인 되었다.

방문객이 집의 남쪽에 있는 입구를 통해 들어오게 되면 중앙에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같은 중앙에 우물이 있는 홀을 만나게 된다. 이 중정은 각각 동서쪽으로 배치된 침실과 북쪽의 부엌과 식당이 있는 곳으로 직접 연결이 된다.

게스트하우스로서 Well Hall은 전통적인 주거의 모델을 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의 가족은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건물은 고정된 요소이지만 가족이란 지속적으로 진화되는 개념을 가진 것이라고 건축사는 이야기한다. 따라서 주택은 하나의 확장된 가족의 형태, 즉 친구들의 그룹이라던가 전혀 낯선 사람들의 그룹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확장된 가족의 형태에 의해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Ma는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건축사이자 프로젝트의 개발자였으며 소요시간, 재료, 디자인을 모두 본인의 계획에 따라 진행했다. 마치 예전의 목수가 그랬던 것처럼.

이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인부들은 대부분 생업이 농업이어서 겨울철에는 일이 한가하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 집에 사용된 벽돌은 근처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자재를 트럭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구

니 가득 담아가다 사용하였다고 한다.

건축사는 이 건물의 내외부를 모두 설계하였다. 실제로 이 건물은 Jade Valley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Well Hall의 디자인을 새로이 할 수 있었으며 그는 이 게스트하우스를 통하여 '통의 안에 있는 전통의 위반'이라는 컨셉을 실현하였다.

벽돌로 된 벽과 점토로 만들어진 지붕재를 사용하는 것인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지료들이다. 외부는 단단해 보이는 벽과 M자형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건축사의 취향에 따라 서구적으로 디자인되었다.

내부에는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작품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며 놓여 있고 특히 입구는 중국의 전통적인 타일 작품으로 장식을 해 놓았다.

이 Well Hall은 때로는 느린 것이 좋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Project X, the Netherlands / René Van Zuuk Architek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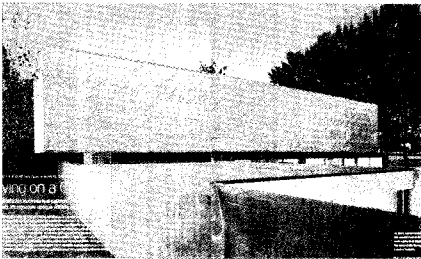
우아한 아르누보의 잎새의 패턴이 Project X의 불투명하고 상징적인 볼륨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Amsterdam, Rotterdam, The Hague를 포함해서 Netherlands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하지 않은 지역은 없다. Project X가 지어진 'Randstad' 라는 도시, 혹은 도시형 밀집지대라고 불리우는 이 곳은 어마어마한 인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주택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곳 역시 Almere와 같이 바다를 매립해서 생겨난 곳으로 1984년 보다 자연과 가깝고 값이 싼 지역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1993년에는 "Fantasy"라는 주택 설계경기를 위해서 도시의 일부를 따로 두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독일인 건축사 René Van Zuuk는 Villar Psyche을 디자인하여 당선된 디자이너로 이는 그의 첫 프로젝트였으며 할당되었던 대지에 집 한 채가 지어졌다. 숫자로 따지면 지어진 주택이 하나인 셈이지만 그의 디자인은 놀랍고 다양한 모습을 지녔다. '표현이 풍부하다'고 평을 듣는 그의 디자인은 2003년 Amsterdam의 중앙역 뒤쪽에 있는 항구에 사람의 눈을 매혹시키는 건물 'Amsterdam Center of

Architecture(ARCAM) 도 그의 작품이다.

실제로 이 건축사는 Villa Psyche에 수년간 살았으면 붙어난 가족들과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Project X라는 새로운 주택을 짓게 되었다. 2009년에 완공된 이 집은 기존의 Villa Psyche보다 넓어졌으며 작은 정원이 운하를 따라 만들어 졌다. 세 개의 침실은 맨 윗층에 사무실, 거실, 부엌은 1층에 위치한다. 부엌과 거실은 운하와 데크 쪽에 있는 면이 전체 유리로 되어 있어 풍부한 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빛을 이 공간에 이끌어 들인다. 또한 두 개의 긴 계단실 같은 복도가 이 집의 주 동선으로 하나는 앞쪽 현관으로부터 윗층으로, 다른 하나는 집과 운하의 뒤편에서 1층과 연결된다. 값싼 오크를 복도의 바닥과 벽면에 사용하였으며 건축사가 저예산으로 이 집을 지었다는 입증하듯이 그는 천연 재료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 새로운 주택은 기존의 주택과 매우 상이하며 건축가는 그저 배경정도의 구조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은 2개층으로 된 긴 직사각형 형태로 된 때



Project X

우 눈에 띄는 모습을 하고 있다.

Technical University of Eindhoven에서 공부한 그는 새로이 개발된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 프로젝트에서도 역시 새로운 재료인 fiber-cement board panel을 사용하여 2층의 파사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아르누보의 세 개의 가치를 가진 형태가 예칭된 패널이 사용되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는 지 모르는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을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해 보고 싶었다고 건축사는 이야기하고 있다.

Randstad에 지어지는 모든 건물은 지역의 인구, 규모에 대한 제한, 그리고 물에 대한 근접성에 의해 생기는 제한점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이 주택이 작고 타이트하게 지어졌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쉽게 보아서는 안된다. 사진에서 이 집은 상당히 커 보이는 것이다. 또한 집에 사용된 마감재 재료는 매우 비싸 보인다. 그러나 이 주택을 디자인한 프로젝트 팀은 비싸지 않은 재료와 전략을 통해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직사각형의 형태를 선택한 것이다. 주택과 사무실이 함께 결합된 이 주택을 통해서 건축가는 여러 제한점을 훌륭한 디자인을 통해 우하하게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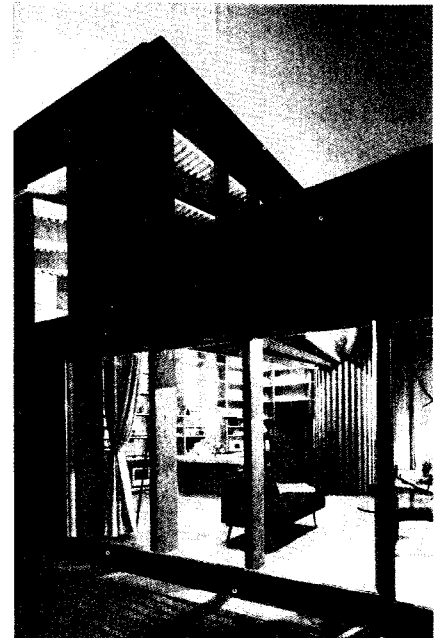
Tree House, Tokyo / Masahiro Harada+MAO/Mount Fuji Architects Studio

‘은유’는 Tokyo에 정교하게 지어진 집에 대해 정의해 준다.

잎이 무성한 낙엽수들 아래에 있는 마술같은 공간이 Fuji Architects Studio에 의해 Tree House로 태어났다. 주택의 형태 자체도 나무와 같이 하나의 기둥으로 되어 있으며 가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프레임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대지와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원예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이 부부 클라이언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Tokyo 외곽에의 중심에 깃대같이 생긴 이 집은 식물을 기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대지의 깃발 부분은 좁아서 방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었으며 또 정원도 만들 수 없었다. 그 대안으로 일반적으로는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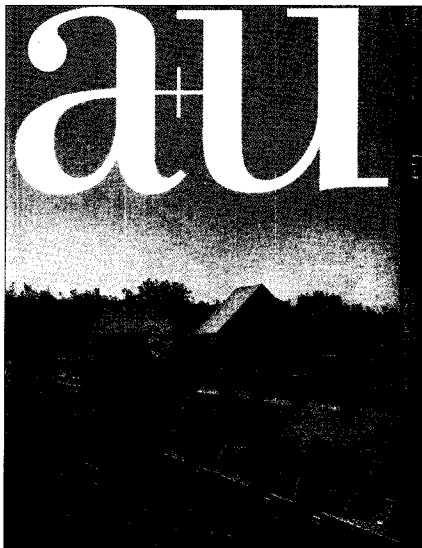
Tree House

쪽에 정원이, 북쪽에 주택이 놓이게 되지만 이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어야 했다고 건축사는 이야기한다.

대지의 깃대가 되는 부분은 입구로써 사용되었고 내부의 중앙에 기둥을 만들어 사적인 공간과 구별이 되도록 하였다. 이 볼륨감 있는 기둥을 중심으로 식당, 부엌, 침실 및 거실을 단차를 이용하여 구별하였다. 부엌의 바닥은 콘크리트로 마감하여 부엌보다 높은 식당, 거실, 침실과 재료를 달리함으로써 공간을 구분하였다. 또한 이 기둥은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아래로 내려주는 깔대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부드럽고 튼튼한 방수처리된 표면, 폴리우레탄으로 기둥의 상부를 포함하여 지붕 전체가 덮여있다.

지붕처럼 외부벽은 거친 느낌이 나는 모래가 섞인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 샌드스톤의 재질을 연상케 해 준다. 건축적인 표현을 위해서 내부와 외부는 많이 다르지 않다. 이웃과의 조화를 위해서 주택의 색은 풍경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중성색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 집은 겸손한 외관으로 역동적으로 디자인된 내부를 감추고 있다. 일본의 전통인 목조 주택은 아마 자연과 함께 짜놓은 듯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Tree House는 자연을 건축으로서 재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최현아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by Choi, Hyun-ah



『a+u』에서는 2003년 (『a+u』 03:05, 03:06), 2004년(『a+u』04:04)와 각각 벨기에와 네덜란드 건축을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이후 건축이 성립되는 배경이 크게 변화해 왔다. 2009년 가을, 20인의 건축사가 벨기에, 네덜란드를 방문해 양국 건축의 현황을 취재했다. 「뛰어난 건축은 교외를 중심으로 건설된다」는 벨기에의 건축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중심부로 계속 옮겨지고 있으나, 전통적인 요소를 남기면서 새로운 소재, 공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많은 특색을 주고 있다. 한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일시 개발의 기세가 꺾인 네덜란드는 중·개축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철저한 질적 추구로 새로운 건축 흐름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각 건축사에게 기고 받은 작품 말머리에 있는 Identity아이덴티티 (Identity) 제작년도 [sh_key_value]2003를 나타내는 단어나 양국의 현재의 건축배경을 언급한 쿤 반 싱겔과 에그버트 코스터의 에세이로부터 변화를 이루고 있는 두 나라의 현황을 볼 수 있다.

Jan De Vylder Architecten
Les Ballets C de la B and LOD
 Ghent, Belgium 2002~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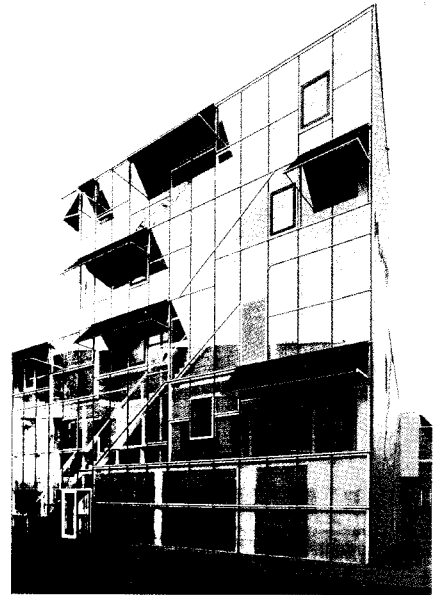
예기치 못한 행운

이것은 아란 프라텔 발레단과 음악극장 LOD 무도와 음악을 위한 2개의 제작 스튜디오다. 그것은 하나의 빌딩을 공유할 예정이었으나, 각각 점유하는 건물을 갖게 되었다. 17번으로 나누어 진토지에 놓여진 이 부지는 그 지세(地勢)와 건물이 갖는 양식,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로 만들어졌다. 오픈 스페이스는 도시의 공간이고, 또 여러 건물과 그것을 에워싼 주변과의 사이에 생긴 개인적인 공간이다.

한번 살펴 보았더니, 이 토지에 있는 복잡한 부지경계선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으나, 최종적으로 이 불가능성으로부터 발상이 여기에서의 컨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차이가 기점(起点)이다. 하나의 건물이 아닌 몇 개의 건물을 보는 방법이 해결의 열쇠가 된다. 클라이언트는 이 불균형 감각을 환영했다. 그가 생각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이 행위는 어느 의미에서 일런드(Eiland, 큰 영양의 일종)의 생애 상황과 커다란 관계가 있고, 일정 기간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또 헨트 시(市)의 몇 곳의 자문기간에 의해 컨셉이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비오르크 전체의 공간 배치에 잘 적합하고, 2개의 건물을 이용하여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한편에 각 공간 사이에 멋진 모양의 미로를 만들어낸다.

두 건물은 똑같다. 그것은 어느 일정한 COPY고, 거울모양이고, 그리고 차이도 있다. 2개의 건물은 등을 맞대 건설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 2개의 닫힌 건물에는 열린 파사드가 2개 있고, 기둥과 대들보가 만드는 층, 금속, 목재, 콘크리트와 석재의 접점 등 건물 내부와 구성을 보여준다. 건설공사는 건물 표면과 디테일을 그려내기 시작한다. 두께가 있는 파사드가 새겨지듯이 건물이 열리고, 갑자기 측면의 공간을 보여준다. 그것은 설치한 듯한 측면의 공간과 연락단계를 보여주고, 때로는 건물의 중심부분- 스튜디오-도 보여준다.

디테일 부분의 시공은 충실히 이루어졌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결합되어있는지가 디테



일하게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소재와 소재가 옆으로 나열되고,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하얀 목재의 대들보는 파사드 상(上)의 여러 요소의 층을 꿰맨 것처럼 이용하고 있다. 스튜디오의 닫힌 벽을 보면 하얀 목재의 구조재는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에 의해 닫힌 파사드는 유리면과 같이 얇게 겹쳐져 보인다.

파사드는 식재(植栽)로 덮혀 있다. 이들 초록 파사드는 식생(植生)된 지붕과 곱합이 잘 어울린다. 식생된 지붕은 그 일부가 깨진 기와지붕 - 주위는 예쁘고 빨간 기와지붕의 경사 지붕 밖에 없기 때문 - 과 초록 잔디밭이다. 이 지붕은 미관뿐만 아니라, 테라스라는 기능을 가지며, 또 물 흡수를 촉진한다. 이 시점에서는 에너지에 관한 특별한 법규는 없었지만,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이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다. 물론 에너지 수요를 억제함에 있어 단열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다. 닫힌 벽과 2중 유리 창문은 냉난방 에너지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조적 공간은 열선보호유리와 차양 루

바를 더한 유리면으로 한다. 이것은 유리로 둘러싸여있으면서 여름과 겨울 계절의 공간을 쾌적하게 한다. 그 외 음향에 관한 문제도 있었다. 110데시벨 음량이 요구되는 한편, 스튜디오 안에서는 완전한 정숙이 필요했다.

우선 콘크리트 외벽이 요구되었고, 그곳으로 유리가 끼워졌다. 이 2중 유리 조금 돌출된 창 시스템이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실제로 보조적인 공간 구성도 거의 동일한 원칙에 따르고 있다. 공기조절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유리를 대량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들은 기술적인 요구는 좋은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자원의 유지를 생각한 계획이란 에너지나 재료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좋은 건물을, 쾌적한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dmvA architecten

Blob

Brecht, Belgium 2008~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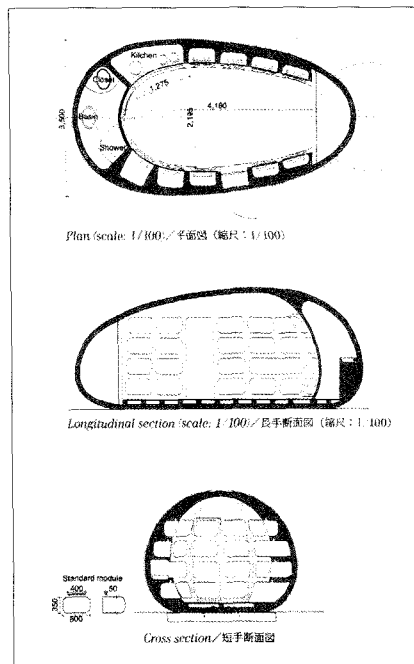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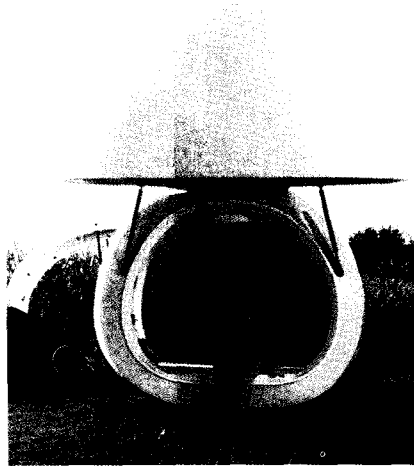
가동성

dmvA architecten이 주택의 증축계획으로서 X팩터에이젠시스(가구 디자인) 사무소를 위해 작성한 디자인은 이 지구(地區)의 건축법규에 의해 가치없이 각하되었다.

건축법규와의 대처, 또 동시에 이러한 규제의 범위를 애매하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dmaA architecten은 블럭이라는 모바일 유니트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그것은 이동 가능한 건축물로서 또 art로서의 고도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건축법규에 의한 엄격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건설에 임했던 AD&S는 이 프로젝트에 1년 반을 보낸 결과, 이 계란과 같은 매끄러운 표면을 실현시켰다. 이 스페이스에그와 같은 집은 누구나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결국, 욕실, 부엌, 조명, 침대, 그리고 소지품을 수납하는 선반 등을 갖추고 있다. 코처럼 돌출된「nose」는 자동으로 열리고, 파우치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이 모바일 유니트는 사무소나 게스트 룸, 응접실이나 가든 하우스 등 생각한 대로 사

용할 수 있다. 이용된 재료는 폴리에스테르. 큰 트레일러 하우스 정도의 사이즈이고 어디에서도 좋아하는 장소로 운반할 수 있다.



新建築



이번호에서는 아이들의 학습공간에 대한 특집을 다루고 있다. 근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학교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배경에 부응하여 새로운 교육방법과 학교건축에 있어서 그 어떤 방법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본 특집에서는 초·중·고등학교로 바뀌어가고 있는 저층형학교를 소개하고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새로운 공간이 제안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의 상호집합적 공간과 프로세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새로운 관계구축

학교제도의 강력화

학교는 사회와 어른의 생각이 직접 반영되는 장이다. 그곳에는 고향 생각과 외동아이의 부모 생각이 복잡하게 교차된다. 풍족하고 안정된 사회는 근면하고 창조적인 시민에 의해 지탱된다. 국가가 교육개혁에 임하



는 이유이다. 자녀가 있는 부모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해 나갈 능력을 우리 아이아말로 가지길 바란다.

일본은 메이지 시기에 서구의 교육제도를 도입한 이후, 학습지도요령으로 나타내는 교육프로그램과 표준 설계와 보조금에 의한 환경정비의 구조에 따라 전국 일률적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담보해 왔다. 정밀도가 높은 운용과 철저함으로부터 큰 성과를 올려,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원동력을 키워왔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회를 달성한 순간, 학교라는 장소에서 생각하지 못한 현상이 빈발하게 일어났다. 학급붕괴에 등교하지 않음, 교원의 불미스러운 일, 외부 침입자에 의한 사건 등 학교이기에 유지되어 왔던 질서가 붕괴되는 현실을 눈앞에 보게 된다. 또, 국제사회에서 「학력관」의 다양화는 학교에서 얻어진 학력이 사회를 살아가는 힘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불명확하다. 생활과 목이나 종합적 학습 시간을 도입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다목적 스페이스를 정비해 왔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학습도달도조사(PISA)의 결과를 추적해 보았다. 성숙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절을 분별하고 화를 중시하는 것이 조용한 인물보다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개성과 주체의 육성이 요구되었다. 곤란한 문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교과에 분단된 지식을 통합하는 정답이 없는 과제로 대처하는 등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

지금 확실히 종래의 경직화한 제도를 강력화하는 시도가 제시되고 현행제도 내뿐만 아니라 구조개혁특구제나 연구개발학교를 활용한 실천이 시작되고 있다.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통학구제도는 학교현장에 경쟁원리를 가져왔다. 적은 인원의 교육은 1클래스당 아동수를 20~25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에서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는 것이다. 학교평의회나 학교운영협의회는 학교운영에 지역의 지혜와 힘을 가진 방책으로서 또 외부로 열린 운영제도로서 도입되었다. 또, 6-3제의 의무교육을 강력화하는 시도로서 초중일관 교육으로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초중일관에 의한 교육환경재편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교육하는 조직과 프로그램을 준비해 의무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속시키는 큰 동기이다.

한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환경이동 과정에서 좌절하는 아이들이 있다. 양자의 불연속한 인적, 물적 환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중1 갭이라 불리는 이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

「도비시 마학원」(본지 177호)의 계획·설계에 착석한 시기를 전후해서 동일 교사(校舍)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하는 학교 계획에 관련되었다. 역시 이 4월에 막 개교한 「나고야시립 사사지마초중학교」는 저출산에 의한 도심부의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통합한 것으로 「초중일관교」 및 「초중일관교육교」를 표방하고 있다. (현재 계획) 중인 닛신시(市)의 타케노야마 지구 신설학교는 인구증가에 대응한 분리 신설학교로 「초중연계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어느 쪽도 목표로 하는 학교상이 다르고, 초중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에 차이가 생긴다.

여기에서 그 차이를 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설계에 의한 대량 학교 건축 스톱을 안고 있으나, 하드웨어 지속할 시스템, 갱신할 시스템 결여, 재정난이 재생 발목을 잡는다. 새로운 시대에 입각한 교육환경의 구축도 급선무이고, 저출산 사회를 향한 규모축소를 동반한 학교환경의 재구축에 쫓기고 있다. 초중일관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북유럽의 스웨덴의 국민기초학교는 동일 학급담임이 9년간 아이와 마주하는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철저한 편이다. 그러나 6-3제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의 다른 문화를 강하게 형성하고, 평평한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 명의 학급담임이 학습과 생활 양면에서 아동에 대해 초등학교 교원과 특정 교과학습에서의 접촉과 생활지도에 쉽게 치우치는 중학교 교원이 의논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행 교원면허나 인사 등 제도면의 자세는 반드시 초중일관에 대응했다고는 할 수 없다.

공립학교에서 초중일관 실천은 이제 막 시작된 것뿐이고, 구체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아이들의 학습, 교류, 건축 관점에서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우선 초등학교 고학년 레벨에서 전문적 지도 시기이다. 중학교 원에 의한 교과담당성(性)이 고학년 수업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학력향상을 목표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폭넓은 세대 교류로 저학년에 대한 배려나 고학년에 대한 동경을 키울 수 있다. 그를 위해, 교류 공간의 적절한 배치와 안정적으로 영역을 점유할 수 있는 학년배치에 대한 배려가 조건이 된다. 건축적으로는 학교 건물을 일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면 공유공간을 상호 이용하는 것으로 이 용율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선진 사례를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학년의 여러 학급이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가진 「쇼난초중학교」(후쿠오카현 코오리아마시), 초중공유 런치룸을 가진 「시바에초중학교 시바에중학교」(도야마현 도야마시/ 본지 0806 설계: 시미즈 건설 시라쿠스 K&H 신시교 건축연구소설계공동기업체), 초중 전체의 학습센터로서 위치한 도서실이 있는 「쇼바초중학교」(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등 참고가 된다. 초중일관교는 아니지만 다른 학년 클래스가 인접한 교과센터 방식을 채용한 「지민중학교」(후쿠이현 후쿠이시)에서 학년을 벗어난 학생간 교류는 흥미 깊다. 아이들은 연령에서 나누어진 학년·학급집단을 형성하고 있고, 교류, 연계, 협력, 공동활동을 의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초중일관교에서는 수업으로 구속되는 시간외로 얼마나 자연적인 초중 교류를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과제에 직면한다. 같이 지붕아래 생활하는 아이들로 보면 연령을 뛰어넘어 서로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놀고, 배우는 것에 전혀 울타리는 없다.

생애학습거점의 중핵으로서의 「도비시마 학원」

도비시마무라는 최첨단 항공우주산업, 고기능 물류의 거점을 자리하고 있고, 뛰어난 재정력을 자랑한다. 마을내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생각은 강하다. 영어교육에 힘을 쏟아, 국제사회를 살아갈 아이들 육성에 힘을 쏟아왔다. 매년 중학 2학년생 40명 전원을 미국 서해안의 홈스테이로 5박 7일로 보내고 있다. 그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구조개혁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부터 영어교육을 축으로 하는 초중일관 프로그램 실시를 시작했다. 이후 초중일체형의 새 교사(校舍) 완성을 향해 초중합동운동회 실시를 계기로 런치룸에서의 급식 시행, 각종 행사개최 등 초중에 의한 공동활동의 성과를 착실하게 쌓아왔다.

한편 이전의 초등학교 건물은 내진성에 문제가 있어, 동사무소 부근의 신부지로의 이전이 검토되고 있었다. 중학교는 내진보강을 완료하였고, 어쨌든 새 초등학교의 부지로 이전하고 일체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초중이 독립된 원격지에서 일관교육의 운영에 있어 사례도 있지만, 문제도 크다. 학교시설 등 검토위원회(2003년 10월 설치)의 위원으로서 건설시기의 차이로 발생하는 과제를 정리, 설명하고 동일 시기의 시설일체형 교사의 현실을 강하게 말했다. 「도비시마학원」마을 동사무소, 홀, 체육관, 온수 수영장, 도서관이 집중하는 마을의 중심 지역에 입지한다. 운영에 따라서는 시설 상호이용이 가능하고, 마을의 사회교육, 학교 교육을 포괄하는 생애학습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와 관련시설과의 융합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초중일관을 기본 좋게 시작하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아이들과 공간의 상호집합적 관계

교류장치로서의 학교_빌딩타입으로서의 학교는 다기능적이고 소규모의 공간이 패키지화되고, 운동장과 한 세트가 되어 특수한 공간을 구성한다. 보통교실과 음악, 도예, 조리, 이과, 체육 등 복수의 특별 교실이 여럿 인접하는 도식(圖式)은 마치 공간화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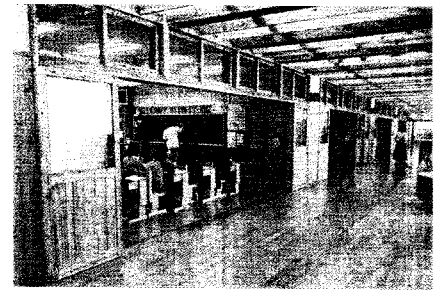
표이다. 다수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건물은 도시공간과 비슷하나, 인구밀도는 상당히 높다. 전형적인 북쪽면 북도를 기본으로 하는 一자형 교사는, 병렬, 중층이 쉽고, 증식방향 타입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고,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장으로서의 공간적 매력을 부족하고, 건축이 갖는 힘이 충분히 발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가운데 정원을 넣고 막다른 곳이 없는 순환형 동선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 건물이 계속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원은 바라보는 정원이 아닌 쉬는 시간에는 놀 수 있고, 수업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아웃도어 다목적 공간이다. 움직임이 단조로운 스트리트 타입과는 달리, 공간의 중심성과 동선의 순환성을 특징으로 한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공간구성이다. 또, 주요 동선을 공간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내부와 외부를 교묘히 나누어 조화시키면서 면적을 연속시키는 타입도 볼 수 있다. 「치바시립우타세 초등학교」(치바현 치바시/ 본지 9507 설계: 시라컨스), 「요시비타카하라 초등학교」(후쿠오카현 요비츄오초/ 본지 9807 설계 고이즈미 + 고토/C+A), 「군마국제아카데미」군마현 타다시 본지 0507 설계 0507 설계 고토+우타세 +아카마츠/ Can+CAt) 학년을 초월한 연결이나 학교의 일체감이 강하다. 동료와의 활동을 의식시키는 시선을 투과성에도 궁리했음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의 마이 타임, 스몰 스페이스 핵가 족화와 저출산으로 사회생활에서 사람과의 교류가 한정적으로 되고 있다. 끈끈한 자연 혈연과는 무연한 일상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있어, 집단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는 여러 면에서 스트레스가 된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화장실 부스에서 여러 명의 아이가 갇히는 현상이 학교현장에서 보고 되고 있다. 체육관 뒤나 활동부실에도 쉽게 모인다. 학교에서는 자신의 책상만이 유일한 장소로서의 의지가 된다.

자신의 자리에 타인이 앉아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즉시 불안해 진다. 자신의 교실 이외의 교실은 예를 들어 쉬는 시간이라도 쉽게 들어가기 어렵다. 사회나 집단과의 관계에 갈등하는 모습의 표현이다.



교실과 인접한 다목적 공간을 도입한 일본의 학교는 지금 세계 중에서도 가장 플렉시블하고 개방성이 높은 공간을 실현하고 있다. 닫혀진 교실 공간이 열린 것으로, 역으로 아이들의 스케일에 맞춘 공간의 좋은 점이 평가받기 시작했다.

학습공간으로서의 흥미 깊은 것은 선진국의 적은 수의 교육에 대처, 그룹학습에 대응한 작은 방을 준비하여 스웨덴의 학교의 사례이다. 공간으로서는 작지만, 투과성이 높은 건물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폐쇄성을 말끔히 배제하고 있다. 미래의 학습환경을 패턴 랭귀지로서 제시하는 The Language of school Design(Prakash Nair & Randal Fielding, 2005)는 교류의 장을 캠프화이어나 풀장(watering Hole)이라는 은유로 또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는 스몰 스페이스를 동굴이라는 은유로 나타내고 있다.

사람의 눈을 피하는 음습한 화장실 부스가 아닌 활동적이고 건강한 스몰 스페이스를 원한다. 동선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놓여진 알코브가 쉬는 시간에 조금만 긴밀한 동료와 시간을 공유하는 작은 공간으로서 인기가 있다. 자립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집단으로 협조할 수 있는 일원으로서 조화롭게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이다.

학습교재로서의 학교공간

학교 건축은 아이들을 안는 Built Environment(구축환경)의 총체이다. 연간

을 통해 반복되는 교내에서의 행동은 하드에 의해 패턴화된다. 학교건축은 아이들에게 있어 Nonverbal Communication(말을 이용커뮤니케이션)이고, Passive Lesson(수동적인 레슨)이고, Hidden Curriculum(숨겨진 커리큘럼)이라 불린다. 말하자면 저온 화상과 같이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는 발달단계의 아이들의 성장의 장이고, 기능적인 스펙으로서 명시할 수 없는 구축환경이 주어지는 영향은 인간관계가 주어진 영향 이상일지도 모른다. 또 학교건축은 그 자신을 3차원의 교재(3D-textbook)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환경교육의 사실적인 교재로서 살릴 수 있다. 환경공생시기에서 건축, 기술, 구조, 소재 등의 살아있는 환경과학의 대상이다. 참으로 각지에서 환경정비와 환경교육을 동시 병행하고 진행하고 있는 에코 스쿨사업에서는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만드는 과정. 계속 사용하는 과정

건축사와 교사를 이어주는 것-공간 만들기의 프로와 인간 만들기의 프로. 건축사도 교사도 전문성이 높은 직종이다. 학교라는 아이를 키우는 환경 창조에 양자의 지혜와 지성을 결합하고 싶다. 그러나 서로 전문영역에 들어갈 수 없고, 의식이 차이나는 것도 적지 않다. 계획론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아카데미 플랜)에 입각하여 건축 프로그램(퍼실리티 플랜)이 입안된 것이 이론적 흐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설계자로부터 제안을 기본으로 수정을 더하면서 교사가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추측된다. 새로운 공간 창출에 의의를 불어넣는 설계자와 표준적인 교사를 매이지시대 이후 사용해 온 교원들과의 사이에는 목표상(像)에 갭이 있어 환경창조로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양자를 연결하는 제3의 번역자가 요구된다.

초기의 계획, 설계 프로세스가 프로젝트



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을 공통 이해되지 않은 채로는 단순한 하드 설계에 화제가 집중되기 쉽다. 의욕이 있는 교사가 근무시간외에 분투하는 것이 아닌, 학교 만들기가 조직으로서 임무에 자리배김 해야 한다. 수업 전개나 아이들의 생활이 건축공간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배울 연수기회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제 공간을 원한다. 3차원의 실제 공간이야말로, 처음부터 알 수 있다. 설계해야 하는 공간이 사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 제안이나 수정도 가능하다.

병원 공사현장에서는 병실의 실물모형을 선행하여 제작하고, 의료스텝의 의견교환의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계획 초기 단계에서 실제 공간을 체험하면서 검토를 거듭하여 모델 클래스 룸을 원한다. 소프트 운용과의 관련으로 하드를 검토하고 싶다. 교사와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의수업을 실행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스쿨이다.

지속가능한 학교 건축_학교 건축은 인구 증가시기에 매우 급히 지어진 이후 쉽게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노후화가 현저하다. 갱신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갖지 못한 자치제는 어쩔 수 없이 생활할 수밖에 없다.

공공시설인 학교 건축은 많은 관계자가 이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키는 주인이 없다. 10년이라는 간격으로 바라보면 대부분의 교원은 이동하고 남아 있지 않다. 교장, 교감의 임기는 더 짧다.

아이들은 물론 세대교체를 하고 있다. 보호자도 아이들이 졸업함과 동시에 인연이 끊어져 버린다. 행정의 담당자도 인수 인계하면서 바뀐다. 인수인계가 중요하지만 일어난 일의 경위는 전달되지 않고, 겉모습만이 형태만으로 전달된다. 장기적으로 몇 대에 걸쳐 학교를 주시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지역이 학교를 필요로 하고, 학교가 지역을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관계성을 회복하고 싶다. "학교개방"이라 말하고 있는 동안은 스포츠 시설의 대여에 한정되고, 다기능적인 공간은 활용되지 못한다.

클라이언트로서의 아이들_사인이나 화장



실이나 비오랍 등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거나 실제로 제작하거나 해서 흔적을 남기는 방법 등이 시도되고 있다. 학교에 대한 프라이스 어태치먼트(장소에 대한 애착)를 키우고, 어느 종류의 교육효과가 기대된다. 혹은 완성되는 새로운 학교의 사용법을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형태의 워크샵 등의 효과도 계속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어른의 참가 기회가 막 인정받기 시작한 일본에서는 아이들의 참가 의의가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고, 그 방법도 미숙하다.

독일의 쾰렌킬헨에서 수많은 해에 걸쳐 건축가와 협동하면서 아이들 자신이 환경공생형의 미래 학교를 실현시키고 있는 경우는 놀랍다. (베타 휴프너 "아이들이 학교를 만든다") (가지마출판 2008년).

로저 하트에 의한 참가 사다리는 잘 알려져 있는 (Children's Participation, 1977년) "어른이 정하지만 아이들도 참가한다" 단계를 거쳐 "아이들이 주도하여 결정하고 옳은도 공유한다. 단계를 목표로 한 것이다. 영국의 the Nation Youth Agency의 hear by Right (히어 바이 라이트)의 이념과 방법에서는 순진, 공정으로 확대한 꿈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어른과 아이들로 사회의 구조를 보다 잘 바꾸어 가지" 라고 젊은이의 사회참가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학교 건축의 설계가 아이들에 대한 시민교육의 중요한 기회라고 잡을 수 있는 레벨에는 도달하지는 않았다. 어른은 장래의 사회만들기의 클라이언트로서의 아이들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상호집합적인 공간과 프로세스야말로 인간과 마주보는 힘을 갖게 되고 공간을 사용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임에 틀림없다. ■

김동범
(주)중합건축사사무소 세하
by Kim, Dong-bum